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 이후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민 방문 총 6박 8일 유럽 3개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스페인을 각각 국민 방문하는 유럽 순방에 나선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영국 방문 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국민 방문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 만에 다자외교에 나선다는 셈이다. 다자외교 재개는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 이후 18개월 만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중단됐었던 대면 정상외교도 이어진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스페인 등 유럽 2개국 국민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G7 정상회의는 11일부터 13일까지 2

박3일 동안 영국 서남부 휴양지 세인트이브스의 콘월에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 지위로 참석한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는 한국·인도·호주·남아공 등 4개국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

지난해 G7 의장국을 맡았던 미국의 초청을 받고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취소됐던 것을 포함하면 2년 연속 초청이다. G20 회원국으로 중견 국가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년 연속 G7에 초대된 것은 G20을 넘어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진 우리의 국제위상 보여준다"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서 당연한 국제적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기회"라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청국 지위로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개최 이튿날인 12일부터 3개의 확대회의의 세션에 참가한다.

보건·열린사회와 경제·기후변화와 환경 등 3가지 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G7 확대 정상회의의 3개 세션에 참석해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며,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박3일의 영국 방문 기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영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2박3일

간 국민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한·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 계기로 성사된 국민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국민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오스트리아 국민 방문 기간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을 비롯해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의 별도 회담을 갖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두 나라 간 교육 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 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녹색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등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간 스페인 국민 방문한다. 스페인 방문 기간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한·스페인 정상회담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을 각각 갖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민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 나라 간 협력 증진,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비용 지원

전북도,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대상

전북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 일환으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우 트랙터·콤바인으로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대상 농기계가 정상 가동이 확인돼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도내 해당 농기계는 전체 4만8,000대 중 3만3,000여대로 69%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기종 및 제조연도별·규격별 차등 지원한다. 트랙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대 1,310만 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말소 처리되며,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폐차업소는 신청 농기계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며,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동상태가 확인된 농기계는 폐차업소(사후관리업체)에 입고된다.

업체는 입고된 농기계를 폐차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에 제출한다.

시·군은 자료를 확인한 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전북도, 병해충 피해 최소화 위해 6~8월까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전북도가 산림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예찰 및 방제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도·시군 산림부서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는 재선충병 전담반, 기술상담반, 이동진단반으로 구성된다.

대책본부는 산림수목, 조경수, 가로수, 도시 주변 공익수, 농·경작물 등에 해를 입히는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예찰 강화와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운영기간 중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근지역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한 중점예찰, 시료채취, 검경을 통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재선충병 발생 시 신속 처리와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병해충 발생과 관련한 민원 현장진단과 처방 등 방제 기술지도를 위해 공립나무병원(063-290-5442, 시군 산림부서,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을 운영한다.

돌발 및 신종 병해충 발생상황을 신



전북도가 산림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예찰 및 방제활동을 강화한다. (산림병해충 방제 모습)

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발생예보 발령과 방제작업을 통해 산림과 농작물을 보호한다.

아울러, 44명으로 꾸린 예방방제단을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꽃매미 등 산림병해충 예찰과 해충알집 제거를 통한 발생요인을 제거한다.

항공예찰을 2회 실시해 발생정황, 피해내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상·항공방제 등을 추진한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및 생활권 주변의 나무에서 병해충 피해를 발견하게 되면 공립나무병원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림피해를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정책개발 특강 온·오프라인 개최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권)이 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평생교육 정책개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향후 평생교육의 방향에 대해 점검해보고, 생애 단계별 평생교육 필요성과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공회대학교 고병현 교수가 미래사회와 평생교육의 의미와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고병현 교수는 "다차원적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유연한 적응력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삶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생애 단계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생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환경과 새로운 일상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권 원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 갈 평생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특강을 개최했다"면서 "이번 특강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유튜브(YouTube) 채널



및 Zoom으로 실시간 생중계해 전국 평생교육 유관기관과 도내 14개 시·

군 평생교육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특강 내용은 전북도인재평

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